

“아름다운 언어, 암송할 수 있어 행복 모든 국민이 명시 50편 외웠으면...”

“오늘도 신비의 샘인 하루를 맞는다// 이 하루는 저 강물의 한 방울이/ 어느 산골짜기 웅덩이에 이어져 있고//...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을 비운 삶을 살아야 한다.” 문길섭 드맹아트홀 관장 (구상-오늘)



문길섭 드맹아트홀 관장 'Y 시강좌' 개설

‘왜 우리가 시를 암송해야 할까?’ 첫 강좌부터 복작

‘좋은 시와의 만남’ 공감... 매달 마지막주 수·금 무료 참여

‘왜 우리가 시를 암송해야 할까?’가 강의의 첫 주제다. 시를 암송하기란 참 어렵다.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는 이따금 흥얼거리지만 교과서에서 배우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초등학교가 지나면 좀처럼 소리 내어 읽지 않는다.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자 저마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시와의 만남’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다들 공감했기 때문이었다. ‘좋은 시와의 만남’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다들 공감했기 때문이었다.

몇 해전부터 시를 암송하기 시작했다는 방신정(77)씨는 “가까운 친구처럼 시가 있어 늘 행복하다”며 “이제는 모임에 나가서 시 한편 외워 읽는 것이 큰 자랑”이라고 말했다.

‘Y 시강좌’는 드맹아트홀 관장인 문길섭(59)씨가 만들었다. 프랑스에서 10여 년간 정치학을 공부했던 문씨는 40대에 귀국 후 우연한 계기로 시인의 길로 뛰어들었다.

지난 2006년에는 ‘시암송국민운동본부’를 만들고 지난 2011년에는 무등산 옛길에 ‘시의 집’을 꾸며 오가는 사람들과 시를 즐기게 했다. 그는 1000여 편의 시를 가슴과 머리로 외우고 있다. 혼자 즐기지만은 않는다. 몇 해

전부터는 패션디자이너 문광자씨의 도움을 받아 명시 50편이 적힌 손바닥 만한 책자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전국에 1만 부가 넘게 배포됐다.

문씨는 “예향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명시 50편을 외우고 살았으면 한다는 생각으로 시 강좌를 만들었다”며 “아름다운 언어의 정수가 담긴 시를 소리내 암송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현종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들’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쯤어리쳐렷/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모든 순간이 다 아/ 꽃봉오리인 것들/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들!”

‘Y 시강좌’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오전 10시30분~오후 7시), 금요일(오전 10시30분) 열린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11-9623-4115.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시 전도사’ 문길섭씨가 지난 30일부터 시작한 ‘Y 시강좌’에 참여한 회원들이 명시 50편 암송을 목표로 시를 배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베어블릭’

‘몰리’

‘kidult’

6일부터 ‘아트토이 컬렉션’ 전



‘커스텀 브리이스’

최근 키덜트(Kidult)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키덜트족은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이의 감수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들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곳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동심의 공간에서 안식을 취한다.

롯데갤러리 광주점에서 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키덜트 문화의 하나인 아트토이(Art Toy) 컬렉션 전시가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일본 ‘베어블릭’ ‘큐브릭’, 홍콩의 ‘퀴’ ‘몰리’, 미국의 ‘더니’ ‘어글리볼’ 등 각국의 대표적인 아트토이와 오래전부터 마니아층이 형성된 ‘브리이스’ ‘캘리클립’ 등 1000여점이 전시된다.

베어람(블로그 RAMRAM), 이유진(MOODOSA), 김정미(KUBISSI), 노호진(Hazelnut), 오지원(Jiwonberry) 등 5명의 국내 컬렉터들이 다년간 수집한 작품이다. ‘수집이란 개인의 역사’라는 말처럼 각 작품에 컬렉터들의 추억과 이야기가 묻어있다. 이밖에도 나나, 최립, 부창초가 모여 만든 디자인그룹 ‘스티키몬스터 램’의 토이 컬렉션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221-180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전통 풍물굿을 보여주마

‘목요 열린 국악 한마당’을 개막공연... 7일 빛고을전수관

광주시 서구가 지난 2003년 빛고을전수관에서 첫선을 보인 ‘목요 열린 국악 한마당’은 광주 지역 국악 환경을 풍성하게 했다.

관소리, 기악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진행된 무대는 모두 375회에 이르고 5만2000여명이 공연장을 방문, 국악의 향취에 빠졌다.

‘목요 열린 국악 한마당’은 7일 오후 7시 열리는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올해도 오는 12월27일까지 매주 관객들을 만난다. 전석 무료.

이번 개막공연을 장식하는 이들은 흥겨운 무대를 선보일 풍물 세상 ‘굿패 마루’다. 전통 풍물굿의 대중화와 보급을 위해 설립된 ‘굿패마루’는 이번 무대에서 고사굿 ‘비나리’, 판굿, 설장구 ‘타(打)&드림’ 등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1월 공연에서는 우리 춤과 가야금 연주도 만날 수 있다. 14일에는 ‘예천연화단’의 우리춤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가며, 21일과 28일에는 황승옥 교수와 성심은 교수가 가야금 공연을 선보인다.

2002년 건립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은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국악전용 공연장과 국악전수실, 국악 박물관 등을 갖추고 있다.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성공회 ‘청노루 글쓰기 교실’ 무료 수강생 모집

광주성공회센터는 지역 여성을 위한 제 7기 ‘청노루 글쓰기 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의는 오는 3월 4일부터 6월 10일(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까지 4개월간 무료로 광주성공회센터(광주시 남구 월산동 화성화관 3층)에서 열린다.

글쓰기에 관심 있거나, 자신의 일상을 글로 담고 싶은 여성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강의에서는 문장 및 단락 쓰기, 묘사 및 서사 쓰기, 일상을 기록하는 법, 에세이 쓰는 법, 글쓰기 치료 등을 배울 수 있다.

강사는 17년 동안 대학에서 ‘글쓰기’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김영화(극작가·문학박사·사진)씨가 맡는다. 접수 마감은 오는 3월 3일까지며 선착순 40명을 모집한다. 전화(018-642-9263)로 접수하거나 다음 카페 ‘청노루 글쓰기’ 공지사항에 댓글로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면 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 ‘은새암’ 지역여성 참여작가 모집

광주여성재단이 운영하는 북카페 ‘은새암’이 작은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지역여성 참여작가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지역 여성소모임과 단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다문화 여성 및 단체의 작품제목을 우선 선발한다. 9개팀(개인포함)을 선정, 전시할 예정

이다. 선정된 팀(개인)은 전시기간 중 시민체험프로그램도 1회 운영해야 한다. 도서, 문화, 심이 어우러지는 공간 ‘은새암’은 광주여성재단이 지난해 문을 연 곳으로 전시회, 강연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http://www.gjwf.or.kr. 문의 062-670-053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국제 보청기의 정성은 고객 만족입니다

☞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謹賀新年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62)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경축”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2013년 새로운 시작!

금수장 호텔 · 아리랑 하우스에서 함께 하십시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6,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2,000원 / B코스 35,000원 / C코스 27,000원**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 것입니다